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경: 마태복음 2장 13-23절

Tag: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2:13-23)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때의 평화는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평화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떠벌린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 앞에 상대적 약자가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둘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우위를 다투게 된다. 세계는 지금 미국의 절대우위 군사력과 중국의 거대시장 우위력이 다투고 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다. 그 평화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속의 평화다. 두번째로는 영생을 품은자의 평화다. 세번째로 공중권세 잡은자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평화다. 이 평화는 세속과는 다른 차원의 평화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성령께서 인치시는 평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아마 며칠 머물다 떠났을 것이다.

-그러자 곧바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함.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함.

-헤롯은 잔인한 사람. 정권욕이 강하여 왕이 될 씨앗을 제거하려고 함. 그러나 겉으로는 자기도 미래의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함.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곧 악한 통치자.

-그러나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분개함.(자기가 먼저 속여놓고) 그는 환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 때를 기점으로 넉넉하게 날짜를 계산한 것임.

-헤롯은 불행의 씨를 말렸다고 생각했을 것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애굽으로 피신시킴.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11:1)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가정을 지켜 주심.

-그러나 헤롯은 횡김에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말한다.

-엄밀하게는 악한 헤롯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이다. 악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선한 자들은 결코 자신의 실책을 남들에게 뒤집어씌우지 못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뒤집어 씌우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뒤집어 쓴다고 생각한다.

-세속 나라에서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베들레헴 아기들만 봉변을 당하는게 아니다.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참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악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투표 조작도 서슴없이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여전하다.

-다만 법치주의라는 장치와, 선거와 여론이라는 장치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뿐이다.

-결국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느냐의 문제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느냐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정의의 근거는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세속정권에 저항하기도 하고(엘리사),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사무엘), 정권을 향하여 쓴 소리로 경고하기도 하고(엘리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아모스), 권력자의

폭정을 피하여 도피하기도 한다.(동방박사와 요셉)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 헤롯왕의 잔인한 폭정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정작 아기와 산모 마리아를 돌보아야 하는 요셉은 헤롯왕의 칼날이 얼마나 잔인할지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급히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빨리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당시 애굽에는 유대인들이 약 100만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곳은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사회를 이룩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헬라이어 구약성경인 70인역도 번역되었다.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목수로서 생활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집안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든지 상류층 가정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상류층이라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니고, 하류층이라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섞여 살아가는 나라다. 이 두 그룹은 갈등관계가 아니다. 하류층이라 해서 불행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적으로 업수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상하류를 막론하고 무위도식 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월을 허송하거나,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악한 것일 뿐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민족의 정기를 살려 우리도 잘 살아가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이 죽게 되었는데(B.C 4년), 기록에 의하면 비참한 질병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진다.

-헤롯이 죽은 후 다시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4두 정치의 한명)이 정권을 이어받았

기 때문에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사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이 나사렛에 가서 살도록 하셨다.

-주의 백성들 중에는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도 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 요셉은 아무래도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 몰래 도망친 사실이 드러날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든 그런 상황이면, 알려질 가능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셨을지라도, 요셉이 불안해 하자 하나님은 요셉이 나사렛으로 가서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자들을 축복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기독교인의 경제관

성경: 마태복음 6장 24-34절

Tag: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

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4-34)

1. 모든 탐심과 세속적인 충동에서 벗어나고, 경건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방식을 터득하기.

-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식량은 넉넉하다.
- 그러나 위정자들의 갑질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 호주의 사정.
- 악한 정치가 식량문제를 야기한다.

2. 자신이 경제적인 주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함임

- 하나님 나라의 의는 먼저 하나님의 정의 실현.
 -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경제정의는 사라짐.
 - 선의의 경쟁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 되어야 함.
 - 자신의 경제적 성취를 위해서 소비자들을 몰아가는 것은 위험함.
- 5G의 실패. 옮겨 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 기술의 발전 필요성이냐,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이냐. 무엇에 돈을 소비할 것인가? 소비자들의 선택이 간교해짐.

3.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 내일의 염려는 무엇인가?
- 오늘의 괴로움은 무엇인가?
- 내일의 염려 보다는 오늘의 괴로움에 집중하라.
- 우선 순위의 문제에 집중하라.

4. 경건한 부자가 되어라.

